

2014년 5월 12일

아침 6시 반. 기상한다. 알람소리가 시끄럽게 울린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폰 알람을 끄고 곧장 인터넷-즐겨찾기-해연갯로 들어간다. 그리고 무슨 글들이 올라왔는지 본다. 특별한 글들도, 재미난 글들도 없지만 찬찬히 훑는다. 이건 중독이다. 눈에 안좋은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다. 그 습관을 고쳐야 함을 알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과연 수술한 지 일년밖에 되지 않은 내 눈이 무사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카페로 들어가 똑같이 반복한다. 찬찬히 살펴봤지만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잠시 멍하게 있다가 일어선다. 어제는 샤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필히 샤워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씻으려고 일어나는 순간 배가 몹시 고파온다. 어제 미칠듯한 식욕을 달래느라 너무 먹어대서 위가 갑자기 늘어난 탓인지도 모른다. 머리로는 씻고 밥을 먹자는 생각을 하지만, 몸은 전혀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다. 결국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냉동실에 얼려놓은 (내 주먹만한) 밥 한덩이와 그동안 외면해왔던 선물용 김을 잘라 간장과 참기름에 비벼먹는다. 어제 먹고 남겨놓은 닭가슴살 몇 조각도 같이. 맛있다. 혀는 만족한다. 그러나 허기가 여전히 달래지지 않아 오렌지 하나도 또 까 먹는다. 나머지 하나도 먹을까말까 고민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낸다. 아쉽지만 그건 저녁에 먹기로 한다.

허기를 겨우 달랬어도 씻을 생각이 도통 들지 않는다. 출근하기가 싫은 탓이다. 월요일에 찾아오는 월요일병이다. 소파 위에서 빈둥대다가 결국 7시를 넘겼고, 7시 30분이 되어서야 몸을 씻을 수 있었다. 나갈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씻고, 옷도 대충 입고, 대신에 화장은 나름 정성들여 한다. 주말에 새로 산 아이새도우와 아이라이너를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라이너는 무른 재질이라 부담스럽긴 했지만 덕분에 매우 잘 그려졌고, 연한 색의 새도우가 반짝이는게 예뻐다. 화장을 끝내고 만족스러워하며 집을 나선다.

이 모든걸 마친 시간이 8시 23분이다. 이 시간에 나가면 지각이 거의 확실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지하철을 타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하철은 곧바로 탔고 역 밖으로 나와서도 바로 도착한 버스덕에 9시 정각에 맞춰 학교로 출근할 수 있었다. 웬지 소소한 일들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제 학교에 출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27일자로 나의 계약은 끝이 난다. 약 2주 가량의 기간에 휴가가 4일정도 남아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얼마 다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장 지금 할 일도 없다. 학교에 나와봤자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가곤 하는 것이다. 어차피 학교가 더 이상 아쉽지도 않고 미련도 없다. 할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할 수도 없다. 할 일이 없는 나는 아무 생각없이 인터넷을 하고 카톡 메신저로 시덥잖은 수다를 떠다. 무념무상이다.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라곤 점심을 어떤걸로 먹을까 하는 것이다. 다이어트 중이라 점심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먹으면 괜히 서럽다.

오늘 점심은 잡채, 단호박전, 콩나물무침, 육개장, 파인애플이다. 그냥 소소했지만 딱히 다른데서

먹고 싶지도 않아 교직원 식당에서 먹었다. 점심을 먹고 와선 오후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생각한다. 그러나 오전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응대만이 밀려 있는 시간을 보내줄 뿐이다. 정말 할 게 없는데 마냥 놀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일이 없다. 머릿속으로 남은 휴가를 어떻게 쓸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요즘 들어서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숨만 쉬는 인간이 된 기분이다.

할 일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데 다른 팀 과장님이 갑자기 우리 사무실로 들어선다. 이전에도 자주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같이 일하던 이전 행정직원 선생님 때문이다. 지금은 그 분이 퇴사하셨는데도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지금은 교수님도 계신데 올라와선 농담이나 던지고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약간 당황했지만 냉장고에 있는 커피 캔을 드리고 보내 버렸다. 정말 알수록 의문스런 아저씨다. 맘에 들지 않는다. 나가서 속이 시원한데 교수님이 질 나쁜 농담을 내게 던진다. 그 농담을 곱씹을수록 짜증이 나서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주 불쾌하다. 남자친구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이후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5시 30분이 되기를 기다린다.

5시 30분이 퇴근 시간이기 때문이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과 잘가라는 인사를 나눈 후, 나는 집까지 걸어간다. 완전히 걸어가는 건 아니고 4개의 지하철역을 지나치는 거리를 걸어간다. 특별히 따로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걷는다. 이전에 인바디를 했었는데 담당 선생님이 적어도 40분씩은 걸을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 말에 따라 나는 매일 40분 이상을 걷는다. 남들은 잘만 걷는데 나는 저 거리만 걸어도 기진맥진한다.

우습게도 실컷 걷고서 나머지 거리는 버스를 타고 집에 온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시간 반은 걸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린다. 정류장 근처에서 누군가가 과일을 팔고 있다.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진다. 망설이다가 아파트 상가 마트로 가서 싱싱한 딸기를 살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막상 마트로 가서 보니 딸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건너편 과일 가게로 가서 딸기를 사왔다. 거의 반값이다. 게다가 그 가격에서 아저씨가 500원을 깎아줬다. 기분이 좋다.

그렇게 딸기를 사들고 집에 들어선다. 이맘때쯤 집은 어둡다. 혼자 사는지라 적막함에는 익숙해졌지만 어둠에는 여전히 익숙치못하다. 집으로 들어오니 몹시 배가 고프다. 집에 오면서 본 만두가 생각나지만 먹을 수 없다. 저녁을 적게 먹은지는 한달이 됐다. 많이 먹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오렌지 하나를 까서 먹는다. 그러나 그걸로는 배가 차지 않는다. 결국 어제 먹고 남은 닭가슴살을 꺼내 먹었다. 그리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온 딸기를 씻어 마구마구 먹었다. 죄책감이 들지만 먹으니 한결 낫다. 이걸 먹고 한시간 후에 운동을 하면 될 거란 위로를 한다. 이미 옷도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서 일기를 쓰다가, 인터넷을 하다가, 사진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잠자리로 들어가 잠을 잤다.

배가 부른 탓일까, 추웠던 탓일까. 곤하게 잤다. 눈을 뜨니 이미 12시는 넘었다.
속은 좋지 않을 것이고 근육은 조금씩 풀어질 것이다. 공부는 또 하지 못했다.
매일 쓰는 손 일기는 하루치 목표가 생략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을 어찌랴. 나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눕는다.
좋은 것도, 나쁠 것도, 특별할 것 하나 없던 2014년 5월 12일의 하루가 지나간다.

인간. 과거. 기억. 아카이브

Human & Memory Archives